

2021년 1월 3일 (성탄절 후 두번째 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예배부름 <1월 3일 주일예배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뒷면에 계속



찬송 <찬송가 550장 1,2,4절>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 <1월 정오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을 이겨내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백신과 치료제로 서로를 품게 하셔서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과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 살리는 시냇가 하늘숲을 꿈꾸게 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신뢰받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주님!
방역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위정자들이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다스리시며
창조질서 회복에 힘쓰는 새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희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이사야 43장 19절>

¹⁹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 뒷면 설교문을 인도자가 낭독합니다.



찬송 <찬송가 288장 1,3절>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봉헌 <온라인 현금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현금>

- 예 금 주: 대한예수교장로회과천교회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1-113642
- 표기방법: 홍길동십일6208(이름 현금종류 생년월)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새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과 비방대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 하시며 우리가 가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